

오이토 지옥

이곳은 오이토 지옥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지옥은 ‘온천’과 ‘지옥’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1800년대 후반 시마바라성(島原城) 근처에 오이토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이토는 사랑하는 사람의 힘을 빌어 남편을 죽인 죄로 유죄가 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려던 순간 땅바닥에서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지옥이 나타났는데, 이는 오이토의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정을 어지럽히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기리시탄 순교비

오이토 지옥 위 언덕에 기리시탄 순교비가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에 세워진 기념비로 1620년대부터 1630년대에 운젠에서 고문을 당해 죽은 33명의 기독교인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1500년대 중반에 일본에 전해져 규슈에서 번성했습니다. 나가사키는 기독교 신앙의 거점이 되었고, 시마바라반도의 영주 아리마 하루노부(1567년-1612년)는 1579년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는 규슈 및 일본 각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확산되어 갔지만, 1600년대 초반에는 이 외국 종교의 운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당초 기독교는 유럽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화기나 무역품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점차 외세에 의한 식민지화 수단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교사는 추방을 당했고 개종자는 처형되는 등 종교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1627년부터 시마바라반도 전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운젠으로 끌려갔고, 신앙을 버릴 때까지 지옥(온천)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희생을 본 운젠 사람들은 기독교 금지가 풀리자마자 희생자들의 굳은 신앙을 후세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 일본사의 암흑기는 작가인 엔도 슈사쿠(1923년-1996년)가 1966년에 소설 “침묵”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 의해 2016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장면들이 운젠 지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념비와 위령제를 통해 시마바라반도 기독교인들의 수난을 기리고 있습니다.